

LG필립스, 세계최대 LCD단지 건설

100만평 파주공장 기공식 개최 ... 7세대 생산라인 및 R&D센터 입주

LG필립스LCD 파주공장 및 산업단지 기공식이 3월18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 손학규 경기도지사,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 구본무 LG 회장 등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사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허가한 첫 수도권 첨단공장인 파주산업단지는 동북아 경제 중심을 열어가는 희망찬 역사의 현장이며 국내 LCD 사업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기술개발 및 기술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국제협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산업계와 연구계가 장비나 재료산업을 육성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G필립스 LCD 구본준 부회장도 “국내 전자산업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이자 LCD 분야 세계 1등을 선언하는 자리이며 파주산업단지는 협력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산·학·연의 유기적인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LCD 관련 선진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는 세계적인 TFT-LCD 코어사이트(Core Site)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10년 동안 25조원이 투입돼 구축되는 LG필립스LCD의 LCD단지는 총 100만평으로 현재 확정된 LCD단지로는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LG필립스LCD의 7세대 생산라인이 들어설 부지 50만평과 40~50여개 협력기업 및 R&D센터 등이 들어서게 될 산업단지 50만평이 함께 자리하게 된다.

공장부지 50만평에는 급성장중인 LCD TV 부문의 시장선두 위치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7세대 및 이후의 차세대 대형 LCD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또 세계최고 수준인 LCD 패널산업에 비해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LCD 기반산업을 육성해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2006년에 세계최대 규모의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산·학·연의 유기적인 R&D 환경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함께 외국 선진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해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LG필립스LCD가 세계 최대 규모의 LCD 클러스터를 파주에 구축하는 데는 지역의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LCD 제품의 수출이 100% 항공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인천 국제공항과 가까운 입지조건은 물류비를 기존 구미 공장에 비해 현저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수도권과 가까워 국제전시장 참여 등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존 구미 공장에 비해서는 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클러스터 입지 선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LG필립스LCD는 구미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핵심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타이완기업들이 차세대 생산라인을 포함한 LCD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LCD 단지유치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까지 건의하는 적극적인 지자체와 함께 동북아 최고의 LCD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Chemical Journal 2004/03/19>